



2면

전북도-김제시, 3개기업과 361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음 3월 30일) 제2522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상생선언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 코로나發 실업쇼크 막는다

노·사·민·정 사회적 타협 '해고없는 도시' 선언 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도, 현장 지원단 운영 위기복지·마음치유 등 위기극복 안정장치 가동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코로나19(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고 없는 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반으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해고 없는 도시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 전영천 바이전주수주기업협의회장, 한춘자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장,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부회장, 현종철 (주)휴비스 전주공장장, (주)육육걸즈 김경자 이사, (주)순장 황이슬 대표, 고려자연식품(주) 홍성운 대표, 매칭시스템(주) 김태희 대표, 최한식 한국

노동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활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상생선언은 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적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주시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할 때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안단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생선언 참여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고용

유지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경제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마음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위기복지대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전주형 SOS 긴급지원과 1000여명의 공공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마음치유대책은 정신건강진단과 예술치유, 전문상담치료 등의 지원으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키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유효한 국민약속”

송하진 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도민 호소문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2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폭발적 감염 사태를 극복한 것은 민주적 방역시스템을 만든 국민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도민들과 치료에 힘써준 의료진, 방역인,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송 지사는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감염병은 언제든 재감 가능할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도민들이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극히 일부 조



치가 완화되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할 국민적 약속”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공체를 위한 연대와 배려의 정신으로 심기일전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세를 확실히 굳혀나가자”며 도민들이 개인 방역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흔들림 없는 방역과 동시에 2,456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6,42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도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올 수능 고3 교육과정은 털어내야”

김승환 교육감, 형평성 거론

“올 수능에서 고3 교육과정은 털어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빼고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고3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고3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한 개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는 형평이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이로 인해 학습 탄력성이 저하되고, 시험 적응력도 많이 약해져 있다”며 “이로 인한 교과 세부능력 기록이 안배 창의력이나 동아리 활동 등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고3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커 학교단위로 등고시험을 치르기로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학생안전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협의없이 등고는 안된다며 전북 교육청의 등고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간행정이이라며 반발했지만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